

주요용어 : 보완대체요법, 간호사, 의사, 태도

##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 비교 연구

장 은 희\* · 박 경 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병의 양상과 사망원인이 크게 변모하여 증상의 조절은 가능하나 완치되지 않는 만성 질환자들이 많이 늘었다. 그들은 자신의 질병관리를 위해 정통적인 건강관리, 즉 현대의학이 흡족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Lee & Park, 1999).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34%(Eisenberg et al., 1993), 호주에서는 49%(MacLennan, Wilson & Taylor, 1996), 유럽 각 국에서는 20-49%(Fisher & Ward, 1994)가 대체의학의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병원에 내원한 암 환자들 응답자의 63%가 대체의학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66.3%에서 사용자의 대체요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Choi, Chung & Choi, 1998)고 하였다.

이러한 보완대체요법은 1978년 WHO의 Alma Ata 회의에서 '2000년대에는 모든 인류에게 건강관리 제공

을'이라는 선언에 따라 현대적 의료자원이나 일반자원이 결핍된 나라에서 기존의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보완대체요법의 관심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1992년 대체 의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체의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의학교육면에서 UCLA, Havard, New York, Johns Hopkins 등 여러 의과대학의 66%가 대체의료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대체의료의 치료방침들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매우 초보적이지만 전체 의과대학의 약 25%와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 대체의료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Wetzel, Eisenberg & Kaptchuk, 199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포천 중문외대에 대체의학대학원이 개설되었고,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가톨릭대 의대 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내에 동중요법클리닉 개설, 가천의대 길 병원에 통합의료센터가 만들어져있으며,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1999년 서울 중앙병원에서, 2002년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듯 의료인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보완대체요법이 검증

\*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간호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3년 1월 9일 심사회의일 2003년 2월 4일 심사완료일 2003년 8월 25일

없이 난무해있어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로 하여금 혼란과 많은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진료나 이중 진료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의 요구와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들은 대체요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가족, 친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매스컴으로부터 얻으며(Sul, 2001), 의료인과 상의하지 않고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Choi, 1997; Son & Sue, 1998).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의 적용을 우려하고 있으며(Jarvis, 1992; Lerner, 1993), 또한 아직도 과학적인 근거 및 효과측정 방법의 부재 속에서 적용의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어 의료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한 높은 비용과 의료인들의 불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Eisenberg, 1996; Pietroni, 1992).

간호학에서 보완대체요법 적용은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는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여 의학적 치료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혹은 독자적인 간호중재의 제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의사와의 관계로 인해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DeKeyser, BarCohen & Wagner, 2001), 반면 미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는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를 위하여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Corbin, Shapiro, 2002).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사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Nam et al., 1997; Yoon, Kim & Oho, 1999; Lee, 1998), 대체요법에 관한 간호사의 인식조사(Ko, 2000),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과 경험(Son, 2001),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Son, 2002)에 관한 조사가 있으며,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를 비교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문제점 속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의 태도의 차이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CAT)

보완대체요법이란 의과대학에서 폭넓게 가르치지 않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치료법(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 2001)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체의학, 대체요법, 보완요법, 보완대체요법의 의미를 총칭한다.

### 2)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는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무적용, 치료적 효과, 사회적 관심, 의사소통의 4개 영역에 대하여 Son(2002)이 개발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도구를 수정, 보완한 25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시내 소재 2개 대학부속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와 의사로 제한되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 C 대학부속 2개 병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의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 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9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었고, 자료수집방법은 사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설문지 간호사 167부, 의사 103부 총 270부를 수집하였다.

### 4.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on(2002)이 개발한 보완대체요법 태도측정도구를 의사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과학 교과과정 도입, 의학적 증거로 개발, 적용의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보완대체요법의 실무적용, 치료효과, 사회적 관심, 의사소통 4영역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의 총화평정척도를 문항별 태도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점 척도로 바꾸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완대체요법에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  $\alpha=0.74$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95$ 로 나타났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0.0 version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점수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t-test, ANOVA 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간호사의 경우 26세 이상-30세 이하가 48.5%, 의사의 경우 26세 이상-30세 이하가 67.0%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간호사의 경우 전문대학이 53.3%, 간호대학이 32.3%,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이 69.9%, 대학원 이상이 30.1%였다. 직위는 간호사는 일반간호사 91.6%로 일반간호사가 많았고, 의사의 경우 전공의가 69.9%로 많았다. 병원 근무경력은 간호사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이 35.3%로 가장 많았고, 의사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27.2%로 가장 많았다.

### 2.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된 각 문항을 간호사와 의사의 명확한 문항별 태도 차이를 보기 위하여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를 긍정으로,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부정으로 하여 3점 척도로 바꾸어 각 영역별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를 빈도, 백분율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간호사는 긍정이 72.7%, 부정이 3.0%로 긍정이 많았고, 의사도 긍정이 57.1%, 부정이 17.7%로 긍정이 많았다.

각 영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 1) 실무적용

실무적용에 대한 각 문항별 빈도, 백분율은 <Table 2> 와 같다.

'환자에게 유용한 보완대체요법은 적용해보겠다'는 간호사의 경우 83.3%가 긍정이었고, 의사의 경우 긍정이 59.3%, 부정이 22.3%였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학과과 과정에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긍정이 74.3%였으나, 의사의 경우 '의과학 교과과정에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긍정이 30.1%, 잘 모르겠다가 34.0%,

<Table 1>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about CAT

categories	nurse N= 167 (%)			physician N = 103 (%)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application	129.1(60.6)	31(18.6)	4.2(2.6)	37.9(36.7)	38.3(33.3)	26.8(25.9)
therapeutic effect	112.3(67.1)	42.5(25.4)	12.3(7.4)	40(38.8)	37(35.9)	26(25.2)
social interest	149.5(89.5)	16.8(10.1)	0.8(0.5)	72.5(69.9)	19.3(18.7)	11.3(10.9)
communication	123(73.7)	41.7(25.0)	2.3(1.4)	68(66.0)	26(25.2)	9( 8.8)
total	128.5(72.7)	33(19.8)	4.9(3.0)	54.6(51.1)	30.1(28.3)	18.3(17.7)

<Table 2>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about application

item	nurse n = 167 (%)			physician n = 103 (%)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Using of CAT is not bad	146(87.5)	14( 8.4)	7(4.2)	49(47.6)	30(29.1)	24(24.3)
CAT is desirable to use for maximizing therapeutic effect	133(79.7)	32(19.2)	2(1.2)	35(34.0)	45(43.7)	23(22.3)
Nurses are willing to refer to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t for patients	95(56.9)	61(36.5)	11(6.6)	23(22.3)	38(36.9)	42(40.8)
Nurses are willing to apply useful CAT for patient	139(83.3)	25(15.0)	1(1.8)	61(59.3)	19(18.4)	23(22.3)
CAT should be introduced nursing curriculum	124(74.3)	39(23.4)	4(2.4)	29(28.1)	47(45.6)	27(26.2)
CAT should be introduced medical curriculum	118(70.7)	45(26.9)	4(2.4)	31(30.1)	35(34.0)	37(35.7)
CAT can be developed as a nursing intervention	146(87.4)	19(11.4)	2(1.2)	35(34.0)	45(43.7)	23(22.3)
CAT can be developed as a medical intervention	126(75.5)	36(21.6)	5(3.0)	43(41.7)	36(35.0)	24(23.3)
CAT can be applied as a nursing intervention	142(85.0)	23(13.8)	2(1.2)	34(33.0)	48(46.6)	21(20.4)
CAT can be applied as a medical intervention	122(73.1)	41(24.6)	4(1.4)	39(37.8)	40(46.6)	24(23.3)

부정이 35.7%로 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치료적 효과

치료적 효과에 대한 각 문항별 빈도, 백분율은 <Table 3>과 같다.

‘보완대체요법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간호사의 경우 65.3%가 긍정이었고, 의사의 경우 35.9%가 긍정, 35.0%가 잘 모르겠다고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의 원리와 적용은 비과학적이다’는 간호사의 경우 50.9%가 부정으로 가장 높았으나, 의사의 경우 42.7%가 긍정, 21.4%가 부정으로 긍정이 높게 나타났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보완대체요법은 효과가 있다’는 간호사의 경우 89.8%가 긍정, 의사의 경우 62.2%가 긍정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에 대한 각 문항별 빈도, 백분율은 <Table 4> 와 같다.

‘보완대체요법은 현대 의학을 보조할 수 있는 사상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간호사의 경우 긍정이 88.1%, 의사의 경우 긍정이 66.1%로 긍정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완대체요법은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간호사, 의사 모두 긍정이 94.0%, 84.5%로 높게 나타났다.

4) 의사소통

의사소통에 대한 각 문항별 빈도, 백분율은 <Table 5> 와 같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완대체요법의 적용을 의사와 의논해야 한다’는 간호사의 79.7%, 의사의 76.7%가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환자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한다’는 간호사

<Table 3>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about therapeutic effect

item	nurse n = 167 (%)			physician n = 103 (%)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CAT can overcome uncertainty of conventional medicine due to its ineffectiveness	109(65.3)	47(28.1)	11( 6.6)	37(35.9)	36(35.0)	30(29.1)
CAT is a quackery	0( 0)	27(16.2)	140(83.9)	9( 8.7)	42(40.8)	52(50.5)
CAT has ideas and methods helping conventional medicine	123(73.7)	43(25.7)	1( 0.6)	49(47.6)	38(36.9)	16(15.5)
CAT facilitate natural healing process of human body	136(81.5)	30(18.0)	1( 0.6)	44(42.7)	49(47.6)	10 (9.7)
CAT has not scientific evidence	14( 8.4)	68(40.7)	85(50.9)	44(42.7)	37(35.9)	22(21.4)
CAT has only placebo effect	29(17.4)	59(35.3)	79(47.3)	33(32.1)	39(37.9)	31(30.1)
CAT is effective, but it is difficult to explain its effect scientifically	150(89.8)	17(10.2)	0( 0)	64(62.2)	30(29.1)	9( 8.7)
CAT do not provide by medical professionals	42(25.2)	49(29.3)	76(45.5)	57(55.4)	25(24.3)	21(20.3)

<Table 4>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about social interest

item	nurse N = 167 (%)			physician N = 103 (%)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CAT is complementary for conventional medicine	147(88.1)	18(10.8)	2(1.2)	68(66.1)	16(15.5)	19(18.4)
CAT is interested in public for relieving symptom and improving wellbeing	145(86.8)	21(12.6)	1(0.6)	62(60.2)	28(27.2)	13(12.6)
CAT is interested by public as well as patient	158(94.0)	9( 5.4)	0( 0)	87(84.5)	12(11.7)	4( 3.9)
CAT is used for health maintenance and promotion popularly	148(88.1)	19(11.4)	0( 0)	73(70.8)	21(20.4)	9( 8.7)

<Table 5>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about communication

item	nurse N = 167 (%)			physician N = 103 (%)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Nurses should have to open communication with patient about using CAT	133(79.7)	29(17.4)	5(3.0)	79(76.7)	10( 9.7)	14(13.6)
Nurses should listen to their patients about using CAT actively	99(59.3)	67(40.1)	1(0.6)	50(48.6)	48(46.6)	5( 4.9)
Nurses should discuss with doctor for patient using CAT	137(82.1)	29(17.4)	1(0.6)	75(72.8)	20(19.4)	8( 7.8)

의 82.1%, 의사의 72.8%가 긍정적이었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를 평균 평점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연령이 많을수록, 직위, 경력이 높을수록 더 점수가 높았고, 의사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더 높았으나, 직위는 높을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p=.000). 학력은 대학원이상에서 간호사(3.94), 의사(3.35)모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000). 종교에 따라서는 간호사는 불교(3.94)가 가장 높았고, 의사는 천주교(3.60)가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 의사 모두 무교에서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p=.002). 근무병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실무 적용, 치료적 효과, 사회적 관심, 의사소통 영역으로 나누어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를 비교하여 앞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연구방향과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는 5점 척도의 각 문항을 간호사, 의사간의 태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명확한 비교를 위하여 각 문항을 '긍정' '잘 모르겠다' '부정' 의 3점 척도로 바꾸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하여 간호사는 긍정이 72.8%, 부정이 3.0%, 의사는 긍정이 57.1%, 잘 모르겠다가 19.8%, 부정이 17.7%로 두 그룹 모두 긍정이 많았으며,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를 비교한 연구는 아니지만 Salmenperal, Suominen과 Lauri(1999)의 연구에서 단지 9.9%의 간호사만이 대체요법이 유용하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르지만, 최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on, 2001)에서 평균 80.58점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Ko(2000)의 연구에서도 78.3%가 중립적 태도이상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Nam et al., 1997)에서도 긍정적인 태도가 50%, 부정적인 태도가 43.6%로 나타나 간호사가 의사보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하여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는 간호사, 의사 모두 사회적 관심, 의사소통, 치료적 효과, 실무적용 순으로 긍정이 높았고, 두 그룹 모두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인정하고 있으나, 의사는 간호사에 비해 실무 적용면에서 긍정이 36.7%로 덜 긍정적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도 33.3%로

나타났다.

실무적용에서 간호사는 긍정이 60.6%, 부정이 2.6%였으며, 의사는 긍정이 36.7%, 잘 모르겠다가 33.3%, 부정이 25.9%로 잘 모르겠다가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보완대체요법을 일단 적용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환자에게 유용한 보완대체요법은 적용해보겠다' '앞으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은 바람직하다' 가 간호사, 의사 모두 긍정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요법 이용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23.6%(Ko, 2000), 개원의의 경우 대체의학 시술경험이 있는 의사는 10.8%(Yoon et al., 1999)에 불과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나 실제적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사에게 환자를 의뢰할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간호사의 56.9%가 동의한 반면, 의사는 22.3%만이 긍정을 나타냈다. 이것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국의 경우 환자를 대체의학에 의뢰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93%이며, 캐나다의 경우 54%라고 보고하고 있는 조사(Perkin, Percy & Fraser, 1994; Verhoef, Sutherland, 1995)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5%로(Yoon et al., 1999) 낮게 나타났다.

'교과과정도입'에 있어서는 간호사의 74.3%가 간호학 교과과정에 보완대체요법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의사는 30.1%가 긍정, 35.7%가 의과학 교과과정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어, Wetzel, Eisenberg와 Kaptchu(1998)의 조사연구에서 전체 대상 중 64%의 의과대학이 대체의학에 관한 교과과목을 선택 혹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 중재로 개발' '의학적 중재로 적용'은 각각 의사의 41.7%, 37.8%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반면 '간호학 교과과정 도입, 간호학적 중재로 개발, 적용'은 잘 모르겠다가 가장 많았다. 이 사실은 아직까지 의사들에게 있어서 간호 영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치료적 효과에서는 '보완대체요법의 원리와 적용은 비과학적이다' '보완대체요법의 효과는 위약효과에 기인한다' '보완대체요법은 의료전문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의 문항에서 간호사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의사는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Ko(2000)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부정적 태도의 원인이 '과학적 검증부족'이 가장 많았던 점과 비교해볼 때 점차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점차로 행해지고 있

다고 사료되어지며, 반면 의사의 부정적 태도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Yoon et al., 1999)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결과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의사 모두 '잘 모르겠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더 필요하며, 검증이 되어진 요법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보완대체요법은 현대의학을 보조할 수 있는 사상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은 환자뿐 아니라 일반대중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개방적으로 의사소통 해야 한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완대체요법의 적용을 의사와 의논해야 한다' 는 간호사, 의사 모두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만성 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Son & Sue, 1998)에서 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중 56.2%가 의사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의사에게 알렸을 때 82.1%에서 의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i et al., 1998)에서도 20.6%만이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상의하지 않은 이유 중 23.8%가 '싫어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간호사와 의사모두 환자의 요구와 필요성,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환자와의 실제적인 관계에서의 개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의 태도를 평균 평점으로 비교한 결과는, 간호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긍정적이었으나, 의사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Yoon 등(1999)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연령을 65세 전후로 나눈 두 군에서의 환자 의뢰율은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직위에 있어서는 간호사는 책임간호사이상이 3.93점으로 일반간호사에 비해 더 긍정적인 반면, 의사는 인턴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레지던트 3.24, 교수 3.14점으로 직위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병원 근무경력에 간호사 3.95, 의사 3.59점으로 모두 10년 이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간호사, 의사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의사는 직위가 높아질수록 보완대체요법에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와 비교할 때, 일반 의사의 경우 연령, 개인적 경험과 환자의 선호요인 등이, 간호사의 경우 연령이 보완대체요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보고(Easthope, Tranter & Gill, 2000)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일반사회에서, 그리고 임상에서 접하는 환자의 수와 경우가 많아질 것이며 그로 인한 간접 경험의 축적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의 기회 증가, 독자적 간호중재에 대한 관심과 요구의 증가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의 원인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반면, 의사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임상에 있는 수련의, 전공의가 대부분이어서 연령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또한 수련의, 전공의, 교수로 직위가 올라가면서 의학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관심, 경험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학력은 간호사 3.94, 의사 3.35점으로 모두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보완대체요법의 간호학, 의학학 교과과정으로의 도입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며, 교육과정운영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와 간호사 모두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간호사에 비해 의사는 실무적용에 있어서 덜 긍정적이며, 특히 치료적 효과의 비과학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비과학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실무적용, 치료적 효과, 사회적 관심, 의사소통 영역으로 나누어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를 비교하여 앞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연구방향과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2개 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67명, 의사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은 2002년 9월 11일부터 23일 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도구는 Son(2002)이 개발한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한 2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점수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된 각 문항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를 긍정으로,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부정으로 하여 3점 척도로 바꾸어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를 빈도, 백분율로 비교한 결과 간호사는 긍정이 72.7%, 부정이 3.0%로 긍정이 많았고, 의사도 긍정이 57.1%, 부정이 17.7%로 긍정이 많았으나, 간호사보다 긍정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는 실무적용에서는 간호사의 60.6%가 긍정인 반면, 의사의 경우 36.7%가 긍정이었으며, 치료적 효과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67.1%가 긍정이었고, 의사는 긍정이 38.8%, 잘 모르겠다가 35.9%로 높았다. 사회적 관심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89.5%, 의사의 경우 86.9%가 긍정으로 두 그룹 모두 긍정이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73.7%가 긍정이었고, 의사의 경우 66.0%가 긍정, 17.7%가 부정, 잘 모르겠다가 25.2%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는 근무병동을 제외한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위, 종교, 병원근무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간호사가 의사보다 실무적용에서 더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증가되고 있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환자의 의학적 치료이외에도 전인적 간호를 시행해야 하는 간호학적 의의와 부합되어지며, 독자적 간호중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라고 사료되어진다. 따라서 환자에게 주어지는 간호중재와 의학적 중재로서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의학적 치료와 동반할 수 있는 독자적 간호중재로서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제언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사와 의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Choi, Y. J., Chung, H. W., & Choi, S. Y. (1998). A Study on the use of alternative medicine for cancer patients admitted at a hospital. *J of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4*(1), 167-181.
- Corbin, W. L., & Shapiro, H. (2002). Physicians want education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to enhance communication with their patients. *Arch Intern Med, 162*(10), 1176-81.
- Easthope, G., Tranter, B., & Gill, G. (2000). General practitioners' attitudes toward complementary therapies. *Soc Sci Med, 51*(10), 1555-1561.
- Eisenberg, D. (1996). Alternative medical therapies for rheumatologic disorders. *Arthritis Care and Research, 9*(1), 1-4.
- Eisenberg, D. M., Kessler, R. C., Foster, G., Norlock, F. E., Calkins, D. R., & Delbanco, T. L. (1993). Unconventional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cost and pattern of us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8*, 246-252.
- Fisher, P., & Ward, A. (1994). Medicine in Europe: Complementary medicine in Europe. *BMI, 309*(6947), 107-111.
- Jarvis, W. T. (1992). Quackery: A National scandal. *Clinic Chemistry, 38*(8), 1574-1586.
- Ko, E. J. (2000). *A Survey of nurses perception with alternative therapy*.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J. K. (1998). Physician's attitude and approach toward alternative medicine, *J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41*(12), 1239-1242.
- Lee, Y. C., & Park, H. S. (1999) A Study on use of alternative therapy in chronic ill patients. *J of Korean Acad of Nurs, 6*(1), 96-113.
- Lerner, I. J. (1993). The Physician and cancer quackery: The Physician's role in promoting the scientific treatment of cancer and discouraging questionable treatment methods.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93*(2), 96-100.
- MacLennan, A. H., Wilson, D. M., & Taylor, A. W. (1996). *Prevalence and cost of alternative medicine in Australia*. Lancet.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NCCAM),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bout the NCCAM, general information [1 screen]*. Available from: URL: <http://nccam.nih.gov/nccam/about/general.shtml>
- Nam, H. W., Jung, Y. S., Mun, B. K., & Park, J. S. (1997). Attitude about alternative medicine of family medicine doctor. *J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18*(11), 1372.
- Perkin, M. R., Pearcy, R. M., & Fraser, J. S. (1994). A Comparison of attitudes by general practitioners, hospital doctors and medical students toward alternative medicine. *J R Soc Med, 87*, 523-5.
- Pietroni, P. C. (1992). Alternative medicine: Methinks the doctor protests too much and incidentally befuddles the debate. *J of Med Ethics, 18*, 23-25.
- Salmenperal, L., Suominen, T., & Lauri, S. (1999). Oncology nurses' attitudes toward alternative medicine. *Psyco-oncology, 7*(6), 453-459.
- Son, H. M. (2001). Nurse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with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J of Korean Acad of Nurs, 8*(3), 314-323.
- Son, H. M. (2002). Nurses attitudes towar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J of Korean Acad of Adult Nurs, 14*(1), 62-72
- Son, H. M., & Sue, M. J. (1998). A Survey of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ies in chronic liver disease. *J of Korean Acad of Adult Nurs*, 10(1), 134-147.

Yoon, H. K., Kim, J. H., Oho, S. W., Yoon, Y. H., & Yoo, T. W. (1999).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primary physician in seoul toward alternative medicine. *J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0(1), 71-78.

Snyder, M., & Lindquist, R. (1998).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ies in nursing*(3rd ed.).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Sul, K. L. (2001). A Study on us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alternative therapy in inpatient with cancer. Master's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Verhoef, M. J., & Sutherland, L. R. (1995). Alternative medicine and general practitioners. *Can Fam Phys*, 41, 1005-11.

Wetzel, M. S., Eisenberg, D. M., & Kaptchuk, T. J. (1998). Courses involv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t U.S. medical schools. *JAMA*, 280(9), 784-787.

- Abstract -

## A Comparative Study of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Jang, Eun-Hee\* · Park, Kyung-Soo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undamental reference for the clinical implement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CAT) by surveying and analyzing different perception and attitude between nurses and physicians. Method: A total of 167 nurses and 103 physicians from two C university health science center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and SPSS program with version 10.0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 of survey. Result: As results, 72.7% nurses and 57.1% physicians showed positive attitude for the concept of CAT, 60.6% nurses and 36.7% physicians responded positively while 2.6% nurses and 25.9% physicians responded negatively for the application of CAT to the clinical practice.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belief of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CAT. 67.7% nurses believed the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CAT while 38.8% physicians did. For attitudes of nurses and physicians toward CAT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ge, gender, marital status, a level of education,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religion, and duration of health care service other than inpatient units.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attitudes of nurses and physicians about CAT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that nurses were more positive than physicians in application.

Key words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Nurse, Physician, Attitude

\* Nurse, Dep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